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1. 1. 14.(목)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2	×	○	담당관 : 이수자 (02-3677-2320)
			팀 장 : 류정현 (02-3677-2323)
			담 당 : 서순석 (02-3677-2324)

과천시민들, 제설작업 참여하며 힘 모아

○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 참여

과천시 시민들은 최근 내린 많은 눈에, 공무원들과 함께 제설작업에 참여하거나 작업자들을 응원했다.

지난 6일, 과천시에 하룻밤 사이 14.5cm의 많은 눈이 내려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에 나서자, 마을 통장, 사회단체 등도 제설작업에 참여하거나 작업 중인 공무원을 위로 방문했다.

6일 새벽, 양경숙 중앙동 통장회장과 장란희 중앙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제설작업 중인 공무원들을 위해 김치전, 수제비, 삶은 고구마 등을 간식으로 제공했다.

문원동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35여명도 내집 앞 눈치우기 운동을 권장하고 주요 도보에 쌓인 눈을 자발적으로 치웠으며, 배선길 전 주민자치위원장과 종교시설인 문천사에는 피자, 떡 등의 간식거리를 보내 눈을 치우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을 응원했다.

9일에는 중앙동 사회단체 29명이 직접 제설작업에 참여해 공무원들과 함께 희망길, 향교말길, 관악산길, 과천중학교 출입구 등에 남아있는 눈을 치웠고, 중앙동 부종일 주민자치위원장과 성정희 주민자치위원은 작업자들을 위해 음료수와 중국음식 등의 먹을거리를 제공했다.

10일에는 별양동 통장단 등 시민 8명이, 12일에는 별양동 통장단과 주민자치 위원 17명이 제설작업에 참여했다.

또한 남태숙 별양동 통장, 이정자 통장회장, 권희정 새마을지도자협의 회장님 등이 구운 계란, 박카스, 파베기, 생과일 쥬스 등을 전달하며 제설작업자들을 응원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제설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으며, 같이 작업에 참여해 준 단체와 통장단 등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인사를 전했다.